

전남도, '햇빛소득마을' 정착...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김민석 총리 신안 방문...ESS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요청 2030년까지 500곳 조성...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속도'

전남도가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 정착과 전국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계통 부족 지역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등 구조적 결핍들을 해소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29일 신안 안좌솔라시티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햇빛소득마을 제도 보완 과제를 건넸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애로와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방문은 태양광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으로 연결시킨 안좌솔라시티 사례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대표하는 모범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신안군의 주민참여형 태양광은 발전 수익을 마을 단위로 환원하는 구조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지역 공동체의 선순환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

전남도가 제시한 핵심 건의 사항은 크게 통 부속 지역에서 ESS 설치비 지원 시 지방비 부담 완화 △담보 어려움이 취약한 마을 공동체·협동조합에 대한 담보대출 요건 완화 △지상보설 및 지역 우선 선정

과 수도권에서 필수로 평가 가점 부여 등이다. 사업 확산의 병목으로 지적돼 온 자원 조달과 금융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하자는 취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의 시대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설 것"이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가장 앞서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오는 2030년까지 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꾸려 마을 조달 구성부터 재원 마련, 태양광 설비 구축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9일 신안 안좌솔라시티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문해 현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특위는 정 후보자에 대해 "높은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광주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후보자가 언론인으로 30년간 지역 현장을 취재하며 쌓은 높은 지역 이해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점으로 봤다.

또 노조 위원장들을 직접 만나 현안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통합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조직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광·경영 분야의 직접적인 실무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내부 전문가 역량을 극대화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한 점과 데이터 기반 경영체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점을 합리적 접근으로 판단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경선 도의원 "사람 머무는 목포 만들 것"

'해관 1897'서 출판기념회

전경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사진)이 지난 27일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형식은 '기념회'였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책 소개보다 시민과의 대화에 가까웠다.

추운 날씨에도 공간을 가득 채운 시민들 앞에서 전 의원은 "도시의 미래는 새로 짓는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는 시간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운을 폈다.

행사 장소로 해관 1897을 택한 이유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개항기 목포의 기억이 남아 있는 이 공간에서 전 의원은 "목포의 다음 장면을 시민과 함께 그려보자"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적 수사보다 장소가 가진 서사가 먼저 말을 건네는 자리였다.

이날 현장에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 위원장,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주철현 전 전남도당 위원장과 서미화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로 뜻을 보냈다.

행사는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소림학



교 황금잔 학생의 색소폰 연주에 이어 국악 신동 임사랑, 고수 윤영웅, DJ 단이 함께한 '아리랑 퓨처리듬'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과 현재를 잇는 구성은 '목포의 문화적 뿌리'라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건 시민 질의 응답이었다. "전경선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인가", "목포는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나"라는 질문은 전 의원을 "빠른 사람이기보다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며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일수록 충분히 듣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목포의 과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위기는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사람이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 중심의 도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번 자리는 책을 알리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자리"라며 "정치 이전에 시민 곁에 있는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오경미 전 광주교육청 국장, 시교육감 출마 선언

"정직한 실력으로 광주교육 바로 세우겠다"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이 29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전 국장은 "무너진 광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한 실력'을 물려주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은 1급수인데, 교육 행정의 뒷물은 4급수라는 자조가 나올 만큼 광주교육이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사·교감·교장·정학사·교육국장·창의융합교육원장을 거친 36년 경력의 교육행정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전 국장은 첫 공약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도덕적이지 못한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인성을 말할 수는 없다"며 "독립적 청렴 윤부즈만과 감사위원회 설치 △업무추진비 및 주요 결재 실시간 공개 △인사위원회 외부 참관인 도입을 약속했다."



오경미 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미래교육 비전으로는 '사람 중심 AI 교육'과 이공계 슈퍼인재 육성을 제시했다.

오 전 국장은 "AI 교육의 중심은 기기가 아니라 인성"이라며 독서·토론 교육을 통한 질문하는 힘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GIST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이공계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의대 쏠림을 완화해 청년이 정착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사 지원 정책으로는 "선생님은 수업에, 행정은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며 학교 행정업무의 대폭 이관과 교권 보호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유성 단기 해외연수는 전면 재검토하고, 5·18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세계가 배우는 '광주형 교육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특히 최근 광주교육감 후보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 직함'과 관련해서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화되고 있어 참 안타깝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직함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오 전 국장은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평생의 자람이 되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36년의 현장 경험과 아이를 키운 어머니의 마음으로 광주교육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차원이 다른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 고효율 히트펌프도 결국 캐리어

120년 노하우가 빚어낸 지속 가능한 냉난방 혁신
2025 NEW 에코 히트펌프 솔루션 EHS

※ 본 제품은 오터캐리어의 기술력으로 연구·개발되어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0% 이상
압도적 에너지 효율
(당사 정적 시험 조건)

최대 58°C
고온 난방,
효율도 거뜰하게

4 사이클
독립 운전,
멈춤 없는 냉난방

탄소까지 줄이는
고효율의 안정





온라인 견적 문의



카탈로그 다운로드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

캐리어를 www.carriermall.co.kr | 홈페이지 www.carrier.co.kr | 구입 문의 1588-8855 | 서비스 문의 1588-8866 | 전국 510개 서비스 네트워크